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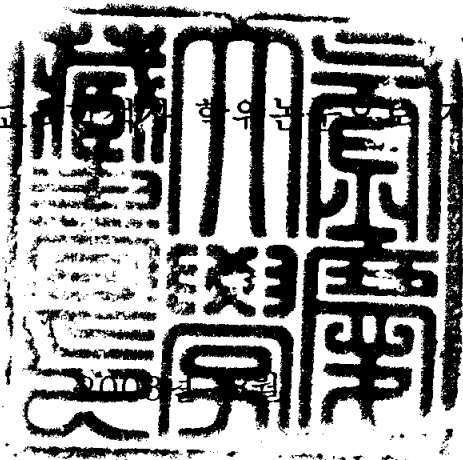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곽 진 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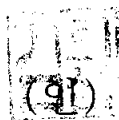
국어교육 전공

최 중 문

최종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6월 일

주 심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목 차

· Abstract	ii
I. 서 론	1
II. 제7차 교육 과정과 하위 영역의 상관성	5
1.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체제	5
2.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 하위 영역의 상관성	9
2.1 교과서 평가의 준거	9
2.2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에 따른 교과서 분석	11
III.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분석	26
1.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	26
1.1 형식적 상관성	26
1.1 내용적 상관성	28
2. 단위 설정의 합리성	31
2.1 단위 구성 방식	31
2.2 단위의 상호 체계성	33
3. 단위 배열의 적절성	35
4. 단위 구성의 적절성	38
4.1 <바른 말 좋은 글>의 적절성 분석	41
4.2 <국어가 걸어온 길>의 적절성 분석	56
IV. 교과서 국어 지식 영역의 분석 결과 및 평가	66
1.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	66
2. 단위 설정의 합리성	67
3. 단위 배열의 적절성	67
4. 단위 구성의 적절성	68
V. 결 론	72
· 참 고 문 헌	77

The Analysis of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Based on the 7th Curriculum

Choi Jong-mo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kye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ims of the 7th curriculum involve self-guided learning and classified teaching and learning. To achieve these aims, Korean language textbooks are re-edited in many ways, resulting in detailed descriptions and attitudes to stimulate various eval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whether the current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are suitable and relevant to the aims of the 7th curriculum. This has been achieved by analyzing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aims of the 7th curriculum and the goals of Korean language teaching, especially focused on a part of the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I subdivided Korean language textbooks into 6 parts -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in order to research how the goals of subdivisions were reflected in the textbooks.

My research made a conclusion tha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m had significant validity within the effective range. The analysis

showed us that some parts of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and the general aims of the 7th curriculum didn't correspond effectively. In this sense Korean teachers will have to work out teaching plans with further information.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concrete goals in teaching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and to classify the contents systematically for that purpose.

key point : the 7th curriculum, high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th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interrelationship,
analysis

I. 서론

“교육 과정의 기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시작하여 일반적으로는 왜 가르치는가를 묻게 되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묻는 것이다. 교육 과정의 질문은 가르치고 배우는 알맹이를 더듬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도순·홍후조, 2002:14) 교육 과정(curriculum)이란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일반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일선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의 잣대가 된다.

교과서란 어느 한 사회가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에 알맞게 편집한 학습 자료로서의 학생용 도서로, 교육 과정상의 지도 내용을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며, 교수·학습을 촉진시키는 자료이면서, 학습 방법의 지침이 되는 학생용 도서를 말한다¹⁾. 교과서는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구현한 구체적인 예이며, 특히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수, 학습 자료라는 점에서 분석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제7차 교육 과정에 입각하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 지식 영역과 7차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7차 교육 과정은 전 시기의 교육 과정과는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제7차 교육 과정의 주된 개정 요인으로는 세계화·정보화·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

1) 이관규(1997)에서는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학습 현장에서 교수-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시된 학습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교육적 요구와 필요성의 변화 및 교육 환경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와 환경 및 수요의 변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제7차 교육 과정은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 중심의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운영으로,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 교육으로의 전환 등의 교육 활동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제7차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 등을 반영하는 교과서 또한 여러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의 체제나 내용을 분석한 초기 논의 대부분은 교육 과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교과서를 구성하는 계열 요소 사이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하거나(조현수:1985, 서금옥:1992, 김영대:1999) 교과서의 전반적인 형식을 논의(이상률:1987)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주로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되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현숙(1986), 김지연(1996), 안수경(1997), 이관규(1998), 이삼형 외(2000), 여승현(2002)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시기적으로 보아 제6차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교과서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므로 새 교육 과정인 제7차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 분석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

2) 교육 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사는 여승현(2002)에 자세히 다룬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고등학교 국어(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 10학년) 교과서의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어 지식 영역에 관한 다음의 논의는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목표가 국어 교과서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 제7차 교육 과정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게 하고, 나아가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어 지식 영역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나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역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가 새로운 교과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파악하고, 국어 지식 영역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통해 더욱 나은 교과서 편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해 편찬된 현행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10학년)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 지식 영역 단원을 대상으로 그 수업 내용과 단원 설정, 단원 배열, 단원 구성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필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한 합리적인 제안을 붙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체제를 제6차 교육 과정과 비교하여 제7차 교육 과정의 체제상 특징을 살펴보고,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하위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별 내용 목표와 교과서의 학습 목표 간의 상관성을 개괄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국어 교과서 ‘국어 지식’ 영역의 단원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우선 형식과 내용면에서 교육과정과의 상관성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로 단원 구성 비율과 단원의 상호 체

3) 김광해(1997:34)에서는 국어 지식 영역을 “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을 기능, 문학, 언어의 3대 영역으로 가를 때, ‘국어’ 과목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만한 내용이지만 기능 영역이나 문학 영역에 속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나머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성을 살펴 단위 설정의 합리성을 알아볼 것이다. 셋째로 국어과 교육 과정상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와 학년별(10학년) 내용을 대비시켜 교과서 단위 배열이 적절한가를 살펴, 넷째 각 소단원의 내용을 살펴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그 대표 단원을 선정한 후, 그 구성 체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단위 구성의 적절성을 살펴 볼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7차 교육 과정의 이상이 국어 교과서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합리적인 교재로서의 국어 교과서 편성과 국어 지식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에서 논의한 분석 결과 및 평가를 요약하고, 제Ⅴ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확장되는 논의를 위한 제언을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고등학교 교과서와의 상관성을 다루는 원리적 분석이 주를 이루게 되고, 6개 하위 영역 가운데 교과서의 ‘국어 지식’ 영역만 다루기 때문에 제한적 결과만 도출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교육 과정상 국어교과서 전체적인 성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각 단계에 따른 세부적 분석들을 제공하는 성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제7차 교육 과정과 하위 영역의 상관성

1.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체제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크게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서 제7차 교육 과정의 기본 이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는 <국어>가 있고,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국어 생활>이, 심화 선택 과목에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포함되어 있다. <국어 생활> 과목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국어과 편제는 제6차 교육 과정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들 교과의 제6차 교육 과정과 제7차 교육 과정상의 차이점은 다음 (1)에서 보듯이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⁴⁾.

(1)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비교

과 목	제6차 교육 과정	제7차 교육 과정	비 고
(구 성)	○국어 교과의 편제를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과목으로 구성	○'국어생활' 과목 추가 신설	○언어 생활의 규범적, 예술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제시
국 어 (10년 공통)	○목표 진술을 공급자 중심, 영역별로 진술	○각 영역을 '지식', '기능', '태도'로 통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진술	○목표 체계의 일원화 지향

4) 교육부 홈페이지 제7차 교육 과정 사이트에서 발췌 인용. <http://www.moe.go.kr/>

국 어 (10년 공통)	○내용을 '내용 체계와 '내용'으로 구분하고, 내용 요소를 각 영역 내에서 '본질', '원리', '실제'로 구분하여 제시 ○내용 진술을 공 급자 중심, 영역 별 7~10항목, 학 교 급별로 진술 ○방법을 '교수·학습 계획', '방법', '자료에 관한 지침'으로 제시 ○평가를 '평가 계획', '평가 목표 및 내용 설정' 등에 관한 지침으 로 구분 제시	○내용 체계를 '본질', '원리', '태도', '실제'로 구분하고, 네 영역의 교육 내용 간의 관계 를 명시적으로 제시 ○10학년의 수준을 고 려하고, '기본', '심화'로 구분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내용을 5~7항목으로 진술함 ○'교수·학습 계획', '보충·심화 학습 계획',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 ○'평가 계획', '평가 목 표 및 내용', '평가 방 법', '평가 결과'의 활 용으로 구분, 구체화 하여 제시	○교육 내용의 특성 을 명료화하기 위 하여 '언어' 영역의 명칭을 '국어 지식'으로 바꿈. ○학년의 개념보다 수준의 개념을 도 입하고,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을 개선 하여 수준별 교육 과정 구성, 학습량 감축 ○교수·학습 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 화하여 제시 ○평가 실천을 위한 지침을 구체화하여 제시
국어 생활	○'국어생활' 과목 없음	○'국어생활' 과목 신설 ○'국어와 우리 삶', '국어 생활의 실천', '국어 생활과 국어 정신' 세 범주로 내용 구성	○국어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본 소양을 학습함. 국민 공통 교육 기간 '국어' 과 목의 발전적 통합을 지향한 '실용성', '교양성'이 특징임.
문 법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징', '국어의 이해', '국어 사용의 실제'로 내용을 구성함.	○'언어와 국어', '국어 알기', '국어 가꾸기'로 구분하여 내용을 제시함.	○학교 문법의 내용을 주입하는 것을 지양 함. 평가 항목을 '탐 구 과정 평가'와 '태도 형성에 대한 평가'로 나누고, '태도에 관한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

문 학	○‘문학의 본질과 기능’,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문학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제시함.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와 태도’로 구분하여 내용을 제시하고, 문학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문학 과목의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문학의 구조를 내적 구조와 외적 구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문학의 창작과 통일 시대의 문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최근의 평가 이론을 반영함.
화 법	○‘화법의 본질’, ‘화법의 원리’, ‘화법의 실제’ 등 3범주로 내용을 구성	○내용 구성을 ‘화법의 이론’과 ‘화법의 실제’로 대분하고 ‘화법의 이론’ 영역을 ‘화법의 본질’, ‘화법의 원리’, ‘화법의 태도’로 구분하여 실제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제시	○화법의 실제 부분에서 태도를 독립시킴. ‘화법 능력’ 개념과 ‘화법 문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최근 평가 이론 반영
독 서	○‘독서의 본질’, ‘독서의 원리’, ‘독서의 실제’ 등 3범주로 구분하고, 독해 기능별로 내용을 구성	○내용 구성을 ‘독서의 이론’과 ‘독서의 실제’로 대분하고, ‘독서의 이론’ 영역을 ‘독서의 본질’, ‘독서의 원리’, ‘독서의 태도’로 구분하여 실제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제시	○독서 과정에 따라 원리를 체계화하여 내용을 제시. ‘어휘 학습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추론하기’, ‘예측하기’ 항목 삽입. 상위 인지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평가 이론을 반영
작 문	○‘작문의 특성’, ‘작문의 원리’, ‘작문의 실제’ 등 3범주로 내용을 구성	○내용 구성을 ‘작문의 이론’과 ‘작문의 실제’로 대분하고 ‘작문의 이론’ 영역을 ‘작문의 본질’, ‘작문의 원리’, ‘작문의 태도’로 구분하여 실제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제시	○작문 과정에 대한 재고하기 및 조정하기 추가. ‘정보화 사회에서의 글쓰기’에 ‘협동 작문’, ‘전자 작문’, ‘직업 세계에서 글쓰기’ 항목을 추가함. 최근의 평가 이론을 반영함.

(1)에서 보듯이 편제와 각각의 내용 면에서 제7차 교육 과정이 제6차 교육 과정과 다른 점은 <국어 생활> 교과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국어 생활>은 ‘국어’ 교과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사용의 실천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성숙한 국민적 소양을 더욱 세련화하여 다지고 익히는 과목⁵⁾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전의 각 교과를 통합⁶⁾하고 이를 다시 학습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7차 국어 교육 과정의 구성 체제는 다음 (2)와 같다.

(2) 제7차 국어 교육 과정의 체제⁷⁾

ㄱ. 성격

ㄴ. 목표

ㄷ. 내용

ㄷ-1. 내용 체계

ㄷ-2. 학년별 내용

ㄹ. 방법

ㄹ-1. 교수, 학습 계획

ㄹ-2. 교수, 학습 방법

ㄹ-3. 교수, 학습 자료

ㅁ. 평가

ㅁ-1. 평가 계획

ㅁ-2. 평가 목표와 내용

ㅁ-3. 평가 방법

5) 고등학교 교육 과정(Ⅰ)(1997:46).

6) 신현재 외(2001:33-41)에서는 “국어과 수업의 통합 범위는 외적 통합과 내적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 통합에는 언어 기능간의 통합과 언어 기능 내에서의 통합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 간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7) 고등학교 교육 과정(Ⅰ)(1997:28-45).

□-4. 평가 결과의 활용

(2)와 같은 체제에서는 무엇보다도 내용과 방법, 평가의 측면을 더욱 세분화하여 다양한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⁸⁾. 예를 들면, ‘목표’ 영역에서는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목표 진술을 공급자 위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영역별로 기술하였다면 새 교육 과정에서는 각 영역을 ‘지식, 기능, 태도’ 등으로 통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내용의 측면이나 방법 및 평가 면에서도 이와 같은 세분화된 노력은 (1)에서 보듯이 특징적인 점이다. 예를 들어, 내용과 평가의 측면에서는 보충과 심화 과정을 두어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이념이나 실현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 교과서라고 한다면 제7차 교육 과정의 이와 같은 체제 기술은 이전의 교육 과정과의 성격을 확연하게 구별시켜 주는 기준이 된다. 물론 1955년 이래 이루어진 교육 과정에서도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교육 과정이 공급자 위주의 구성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면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교육의 주체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제7차 교육 과정과 교과서 하위 영역의 상관성

2.1 교과서 평가의 준거

8) ‘성격’의 영역에서는 제6차 교육 과정의 내용과 제7차 교육 과정의 내용이 일치한다.

국어과 교과서의 체제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삼형 외(2000)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어과 교과서의 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어과 교과서 평가 요소

- ㄱ. 형식면의 평가 요소 : 판형, 분량, 지질, 색도, 활자 크기 및 글꼴, 행간(行間) 및 행장(行長), 디자인 및 편집, 일러스트, 인쇄 및 제본 상태, 표지 및 화보 등
- ㄴ. 내용면의 평가 요소 : 교육 과정 반영도, 단위 설정의 합리성, 단위간의 체계성, 단위 교수 요목(教授要目)의 정합성, 체제 정합성, 학습 활동의 효율성, 참고 자료와 보조 자료의 정확성, 학습보조 장치 여부, 평가의 타당도 등

(3)은 국어과 교과서의 짜임새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물론 또 다른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 요소를 설정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이들 조건이 교과서의 짜임새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새 교육 과정에 입각하여 편찬된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목표를 가지므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평가 요소에 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3.ㄴ)의 내용 면의 평가에서도 단지 교육 과정의 반영도 요소에 의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용 면의 평가 요소에서도 교과서의 내용적 체제 분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요소들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 단위 설정의 합리성, 단위 배열의 적절성, 단위 구성의 적절성’의 영역 면에서 교육 과정과 국어 지식 영역간의 상관성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2.2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에 따른 교과서 분석

2.2.1 형식적 상관성

1) 체제의 비교

제6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와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구성상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차에서는 교과서를 상, 하권으로 나누어 전체를 16개(상권 10개, 하권 6개)의 대단원으로 나누고, 각 대단원은 다시 몇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제6차에서는 읽기 영역 6개 대단원, 문학 영역 6개 대단원, 언어 영역 4개 대단원으로 나누고,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은 그 영역 자체의 체계를 고려하되, 대단원의 성격과 연계되도록 재구성하였다. 이에 비해 제7차 교과서는 이와 같은 대단원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어과 교육 과정의 여섯 영역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였다⁹⁾.

다음은 제6차 교과서와 제7차 교과서의 체제를 제시한 것이다. 국어생활 영역은 교육 과정에 존재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영역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어생활 영역으로 처리하였다.

9) 이 글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와의 상관성을 논하므로 그외의 형식적, 내용적 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4) 교육 과정에 따른 대단원의 짜임새¹⁰⁾

영역	제6차		제7차	
	대단원	소단원 수	대단원	소단원 수
말하기	읽기의 본질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2
	문학의 즐거움	5	다양한 표현과 이해	2
	읽기와 어휘	3	바른 말 좋은 글	2
	문학의 유형	5	생각하는 힘	2
	글의 내용과 구조	3	함께 하는 언어 생활	2
	작자, 작품, 독자	5	효과적인 표현	2
	비판적 이해	3	감동을 주는 언어	2
	독서와 인생	3		
	국어와 생활	3		
	언어와 문학	5		
	설명과 설득	3		
	국어의 변화	2		
	문학과 문화	5		
듣기	읽기의 본질	2	다양한 표현과 이해	2
	문학의 즐거움	5	노래의 아름다움	5
	읽기와 어휘	3	정보의 조직과 활용	2
	문학의 유형	5	함께 하는 언어 생활	2
	글의 내용과 구조	3		
	작자, 작품, 독자	5		
	비판적 이해	3		
	독서와 인생	3		
	국어와 생활	3		
	언어와 문학	5		
	설명과 설득	3		
	국어의 변화	2		
	문학과 문화	5		

10) 국어과 교육 과정 가운데 ‘말하기, 듣기’는 밀접한 상호 관련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묶었다.

읽기	읽기의 본질	2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2
	읽기와 어휘	3	능동적인 의사 소통	2
	비판적 이해	3	정보의 조직과 활용	2
	독서와 인생	3	표현과 비평	2
	설명과 설득	3		
쓰기	읽기의 본질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2
	문학의 즐거움	5	바른 말 좋은 글	2
	읽기와 어휘	3	능동적인 의사 소통	2
	문학의 유형	5	생각하는 힘	2
	글의 내용과 구조	3	효과적인 표현	2
	작자, 작품, 독자	5	감동을 주는 언어	2
	비판적 이해	3	전통과 창조	2
	독서와 인생	3		
	국어와 생활	3		
	언어와 문학	5		
	설명과 설득	3		
	국어의 변화	2		
	문학과 문화	5		
문학	문학의 즐거움	5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2
	문학의 유형	5	노래의 아름다움	5
	작자, 작품, 독자	5	언어와 세계	2
	문학과 현실	5	정보의 조직과 활용	2
	언어와 문학	5	효과적인 표현	2
	문학과 문화	5	감동을 주는 언어	2
			전통과 창조	2
			능동적인 의사 소통	2

(4)에 분석의 대상이 된 대단원 수와 소단원 수는 제6차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에서는 각각 16개와 58개지만, 제7차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

서에서는 15개와 35개로 훨씬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수적인 열세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생활>이 <국어> 교과서에서 독립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영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7차에서는 수적인 열세와는 달리 각 소단원의 기능적 특징을 더욱 명확히 하여 수업 중 수행해야 할 수업 목표를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제시한 데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제6차 교과서에서는 각 단원에 대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에 대한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목표성이 불투명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반면 제7차 교과서에서의 학습 목표는 제6차에 비해 분명하고 구체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목표를 전문과 하위 목표(언어 기능, 언어, 문학 목표) 구조로 제시한 데 비하여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초·중·고 목표의 일원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과 하위 목표(지식, 기능, 태도 목표) 구조로 제시하였다¹¹⁾. 이는 인지적 교육 내용 관련 목표(지식, 기능)와 정의적 교육 내용 관련 목표(태도)를 설정하여 제시한 것이며, 지적 성숙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의 내용 목표와 교과서의 학습 목표의 상관성은 대단원의 수나 소단원의 수라는 단순한 수적 측면에서 이해되기보다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과 교육 과정상의 하위 영역이 차지하는 분량의 정도를 소단원의 수와 관련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²⁾.

11)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2001:90), 교육인적자원부.

12) 특정 소단원이 각 하위 영역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소단원의 총 수에 대해서 각 하위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얻는 방식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소단원의 총 수에 대한 각 하위 영역의 백분위로 나타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5)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¹³⁾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제6차 교과서	소단원 수 (총 196개)	47	47	14	47	30
	비율	24%	24%	7%	24%	15%
제7차 교과서	소단원 수 (총 79개)	14	11	8	14	19
	비율	18%	14%	10%	18%	24%

(5)에서 보듯이, 제6차 교과서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쓰기’ 영역에 소단원이 집중해 있다. 반면에 ‘읽기’, ‘문학’ 영역은 이와는 반대된다. 특히, ‘읽기’ 영역은 소단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제6차 교과서에서는 태도와 관련된 영역에 교육 과정의 중심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7차 교과서에서는 국어과의 전 하위 영역에 소단원이 골고루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6차와는 달리 ‘문학’ 영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소단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5)에 대한 이상의 통계 수치를 놓고 평가할 때 제6차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그리고 제7차 교육 과정과 교과서와의 상관성의 상대적 정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교육 과정의 내용 목표가 해당 교과서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반영되고, 이러한 내용 목표가 학습 목표와 실제 학습 활동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각각의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관성은 궁극적으로 교육 과정의 실

13) 표에 나타난 각각의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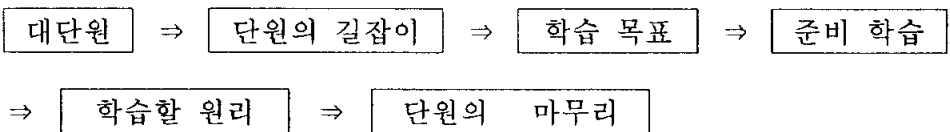
현에 대한 입안자의 의지와 직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제6차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제7차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제7차 교과서에서는 국어 생활 영역이 생겨났다는 점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소단원 수의 축소가 이루어졌고, 또한 자기 주도적 수업과 수준별 수업을 위한 다양한 방법, 예컨대 학습 활동 과정에서 수시로 자기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원의 끝에는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른 단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과는 색다른 체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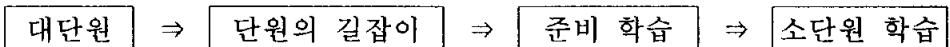
2) 대단원의 기본 체제

대단원은 교과서의 내용적, 형식적 뼈대를 구성하므로 대단원의 체제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즉, 각 단원의 내용은 교수-학습 과정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교과서의 대단원을 살피는 일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제6차 교과서와 제7차 교과서 대단원의 기본 체제이다.

(6) 제6차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기본 체제



(7) 제7차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기본 체제



⇒ 단원의 마무리 ⇒ 보충·심화 학습

(6)과 (7)에서 보듯이, 대단원의 체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제7차 국어 교과서에서는 제6차와는 달리 소단원을 학습하는 과정 중간 중간에 각 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혼자하기’와 ‘함께하기’란을 두어 학습자가 스스로 중간 과정의 학습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대단원 끝에 보충·심화 학습란을 둠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것과 같이 제7차 교육 과정의 일반적인 목표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과정 중심의 학습 모형을 실제로 학습 과정에 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2 내용적 상관성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 과정이 교과서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교과서 대단원의 학습 목표와 소단원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 부분은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 부분으로 구성된다. ‘내용 체계’ 부분은 ‘본질, 원리, 태도, 실제’의 하위 영역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여기서는 우선 교육 과정에 제시된 순서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 순으로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8) 듣기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¹⁴⁾

교과서		교육 과정
대단원	학습 목표	
다양한 표현과 이해	(1) 다양한 의사 표현 수단 (2) 언어 외적 표현의 역할	(1)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역할
노래의 아름다움	(1) 올바른 듣는 태도	
정보의 조직과 활용	(1) 다양한 매체 정보를 통한 듣기 (2) 매체 정보의 재조직	(2) 필요한 정보 찾으면서 듣기 (3) 정보 재조직하며 듣기
함께 하는 언어 생활	(1) 듣기 활동의 조절 (2) 올바른 듣는 태도	(5) 듣기 활동 조절하며 듣기

(8)은 제7차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과 그 대단원에 제시된 단원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듣기’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다음은 교육 과정에 반영된 듣기 영역의 내용 목표이다.

(9) 듣기 영역의 내용 목표

- ㄱ.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1).
- ㄴ.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듣는다(2).
- ㄷ.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는다(3).
- ㄹ. 전달 효과를 평가하며 듣는다(4).

14) 표에서, 교육 과정 란에 제시된 (1), (2)...와 같은 번호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의 번호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 목표가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대응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비교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口.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5).

(9)와 (8)의 교과서 학습 목표를 대응시켜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 과정 목표가 거의 교과서 학습 목표에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육 과정의 일부((4))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 목표와 대응되지 않는 교과서 학습 목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 과정 목표보다 더 많은 수업 활동이 교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듣기 활동은 말하기와 관련된 상호 관련된 활동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비판의 수용 여부도 거론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듣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반화된 원리나 이론이 수업 활동에 체계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 과정과 학습 목표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말하기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교과서		교육 과정
대단원	학습 목표	
짜임새 있는 말과 글	(1) 효과적인 내용을 통한 말하기 (2) 내용 조직의 일반적 원리	(3)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른 조직
다양한 표현과 이해	(1) 언어 외적 표현의 역할	(1)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역할

바른 말 좋은 글	(1) 바르고 좋은 표현하기	(4)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기
생각하는 힘	(1) 상황에 적절한 내용의 중 요성 (2) 내용 생성 방법 알기 (3) 내용 생성 능력 갖기	(2)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말하 기 (2)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말하 기
함께 하는 언어 생활	(1) 말하기 활동의 조절 (2) 올바른 말하기 태도	(5) 말하기 활동 조절하며 말하기
효과적인 표현	(1) 효과적인 표현의 원리 활용하기	(4)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기
감동을 주는 언어	(1) 적절하고 가치 있는 내용 생성하기	(2) 내용을 절절하게 생성하여 말하 기

(10)은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 목표가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골고루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말하기 영역의 내용 목표이다.

(11) 말하기 영역의 내용 목표

- ㄱ.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1).
- 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말한다(2).
- ㄷ.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3).
- ㄹ. 표현과 전달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말한다(4).
- ㅁ. 자신의 말하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5).

(10)의 교과서 학습 목표에는 (11)의 내용 목표가 일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10)은 (11)의 내용 목표가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적절하게 반영되기는 했지만,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말하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말하기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말하기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능력을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말하기는 듣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말하기와 듣기 행위와의 상관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부족하다. 따라서 자신이 말한 내용과 구조 등에 대해 상대방이 비판하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 지도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교육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합 교육을 지향하는 제7차 교육 과정의 정신을 고려한다면 더욱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읽기 영역에 대한 교과서와 교육 과정의 상관성을 보인 표이다.

(12) 읽기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교과서		교육 과정
대단원	학습 목표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1) 배경 지식을 통한 올바른 읽기 태도	
능동적인 의사 소통	(1) 의사 소통 행위의 인식	(1)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알기
정보의 조직과 활용	(1) 다양한 매체 정보를 통한 읽기 (2) 매체 정보의 재조직하기	(2) 필요한 정보 찾으며 읽기 (3) 정보를 재조직하며 읽기
표현과 비평	(1) 표현과 전달의 효과 평가하기 (2) 비평적 준거에 따른 평가하기	(4) 표현 효과 평가하며 읽기 (5) 읽은 내용의 신뢰성 타당성 평가하기

(13) 읽기 영역의 내용 목표

- ㄱ. 읽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 ㄴ.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 ㄷ. 정보를 재조직하며 글을 읽는다.
- ㄹ. 표현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 ㅁ.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 ㅂ. 일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

(12)와 (13)에서 보듯이 읽기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상의 내용 목표는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읽기 영역은 실제 수업 현장에서 중심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활동 영역이다. (12)는 읽기 영역의 지도가 이해를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쓰기 영역에 대한 교과서와 교육 과정의 상관성을 보인 것이다.

(14) 쓰기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교과서		교육 과정
대단원	학습 목표	
짜임새 있는 말과 글	(1) 효과적인 내용을 통한 쓰기 (2) 내용 조직의 일반적 원리	(3) 효과적인 내용 조직 글쓰기
바른 말 좋은 글	(1) 올바르게 고쳐 쓰기 (2) 바르고 좋은 표현 하기	(5) 고쳐쓰기의 원리에 따라 고쳐쓰기
능동적인 의사 소통	(1) 의사 소통 행위 인식	(1)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알기

생각하는 힘	(1) 상황에 적절한 내용의 중요성 (2) 내용 생성 방법 알기 (3) 내용 생성 능력 갖기	
효과적인 표현	(1) 효과적인 표현 원리 활용하기	(4) 표현의 일반 원리에 따라 글쓰기
감동을 주는 언어	(1) 적절하고 가치 있는 내용 생성하기	(2) 적절한 내용의 글쓰기
전통과 창조	(1) 창의적 표현 태도 기르기	(6) 창의적인 글 쓰기 태도

(15) 쓰기 영역의 내용 목표

- ㄱ.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 ㄴ.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
- ㄷ.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 ㄹ. 표현의 일반 원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글을 쓴다.
- ㅁ.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사용하여 글을 고쳐 쓴다.
- ㅂ. 창의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14)와 (15)는 쓰기 영역에서 교육 과정의 내용 목표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쓰기의 목적과 방법 등에서 전반적으로 교육 과정의 내용 목표가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쓰기가 과정 지도를 요구하는 행위이며, 더군다나 실제적인 글쓰기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지도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또,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이며, 정보 전달의 기능¹⁵⁾을 가진다면 다른 학생과의 비교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학습 활동이 요구된다.

15) 정동화 외(1984:353-354)에서는 글짓기의 목적을 크게 첫째, 글짓기 능력의 신장, 둘째, 통찰력, 사고력, 관찰력을 기르고 감수성을 세련시키는 것이며, 셋째, 완전한 인간의 형성이라고 제시했다.

(16)은 문학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을 보인 표이다.

(16) 문학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교과서		교육 과정
대단원	학습 목표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1) 문학의 즐거움과 보람	(3) 문학의 기능 알기
능동적인 의사 소통	(1) 작품 의미의 이해 능력과 태도	(4) 작가, 작품, 독자의 관 계 이해와 능동적 활용
노래의 아름다움	(1) 작품 구성 요소와 기능 (2)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2) 작품 구성 요소와 기능 이해 (6)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
언어와 세계	(1) 언어와 사고, 문화, 사회의 관 계 알기 (2) 사회, 문화적 상황 파악하기 (3) 사회, 문화적 상황 활용하기	(5) 사회, 문화적 상황 활 용하기
정보의 조직과 활용	(1) 사회, 문화적 상황의 재조직을 통한 감상	(5) 사회, 문화적 상황의 능동적 활용
효과적인 표현	(1) 문학적 표현의 효과와 방법 알기 (2) 자신의 정서 표현하기	(6)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
감동을 주는 언어	(1) 문학의 아름다움 파악하기	(3) 문학 작품의 미적 가치 파악하기
전통과 창조	(1) 문화 전통의 계승, 발전 능력 기르기	(7) 문화 전통 계승, 발전 태도 기르기

(16)을 보면 문학 영역에서 교육 과정의 내용 목표가 교과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육 과정의 내용 목표를 보이면 다음

과 같다.

(17) 문학 영역의 내용 목표

- ㄱ. 문학의 기능을 안다(1).
- ㄴ. 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2).
- ㄷ.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파악한다(3).
- ㄹ.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알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4).
- ㅁ.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5).
- ㅂ.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6).
- ㅅ.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7).

(17)의 내용 목표에 제시된 내용 목표가 (16)의 표에서 보듯이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골고루 반영되어 있다. 이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학습 목표가 매우 긴밀한 상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7)의 ㄱ과 같은 문학의 본질에 대한 교육 과정이나, 또 문학의 미적 가치에 대한 이해의 측면과 문학 이론에 대한 응용이라는 교육 과정이 교과서에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학 영역이 수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이 문학 영역이 예술적 감각을 자극하고,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분석

제Ⅱ장에서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상 하위 영역의 내용 목표와 교과서 학습 목표와의 상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상당한 상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어 지식> 영역은 국어과의 하위 영역으로서 이 글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과 이상, 내용과 실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이므로 교과서 분석은 교육 과정의 기본적인 이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논의는 우리말에 대한 제7차 교육 과정의 이상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피는 적절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제7차 교육 과정의 이상이 <국어 지식> 영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영되었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단원이 구성되었는지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 과정과 교과서와의 상관성, 단원 배열의 적절성, 구성의 적절성, 단원 비중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보다 능동적인 교과서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

1.1 형식적 상관성

제6차 교육 과정과 제7차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에서 국어 지식 영역과 관련된 각각의 소단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8) 제6차와 제7차 교과서의 소단원 수

영 역	제6차 교과서		제7차 교과서	
	대단원	소단원 수	대단원	소단원 수
국어 지식	언어와 국어	3	짜임새 있는 말과 글	2
	국어의 구조	3	국어의 길	3
	국어와 생활	3	함께 하는 언어 생활	2
	국어와 변화	2	전통과 창조	2
			바른 말 좋은 글	2

(18)에서 보듯이, 제6차 교과서와 제7차 교과서의 대단원의 수는 각각 4개와 5개이다. 동시에 각각의 소단원 수는 11개이다. 제6차 교과서와 제7차 교과서는 대단원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소단원에서는 그 수가 동일하다. 이는 교육 과정, 또는 교과서 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별다른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제6차와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모두 선택 과목으로 <문법>이라는 과목을 두고 있고, 또 국어 과목 자체에 국어 지식 영역이 거의 비슷한 수적 모습을 보이는데에서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일선 학교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가지는 국어 지식에 대한 무관심을 고려할 때 국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관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제6차 교과서와 제7차 교과서의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대단원과 소단원이 차지하는 양적 비율과 유사하게 국어 지식 영역의 소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어과 하위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할 때 제6차 교과서에서와 같이 제7차 교과서에서도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국어과의 하위 영역과 관련된 소단원이 각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9) 제6차와 제7차 교과서의 국어과 하위 영역의 상관성

영역 교과서 단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국어 지식
제6차 교과서	소단원 수 (총 196개)	47	47	14	47	30	11
	비율	24%	24%	7%	24%	15%	6%
제7차 교과서	소단원 수 (총 79개)	14	11	8	14	19	11
	비율	18%	14%	10%	18%	24%	14%

(19)는 국어과를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 영역의 소단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국어 지식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6차와 제7차에서 각각 6%와 14%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어 지식 영역의 비율이 전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 영역을 교과서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교육하려는 교육 과정의 목적과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1.2 내용적 상관성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직접적인 반영이며, 학습 활동의 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해당 교육 과정의 정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료라 할 수 있다. 국어 지식 영역 또한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에 대한 교육 과정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표이다.

(20)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교과서		교육 과정
대단원	학습 목표	
짜임새 있는 말과 글	(1)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4) 문장의 짜임새 알기
바른 말 좋은 글	(1) 문법에 맞는 국어 활동	(6) 문법에 맞는 국어 사용
국어가가 걸어온 길	(1) 국어의 역사 알기 (2) 국어의 시대별 변화 알기 (3) 국어 변화 과정과 현대 국어의 비교 (4) 국어의 역사 정보 찾기, 알기	(2) 국어 역사 알기 (2) 국어 역사 알기 (2) 국어 역사 알기 (2) 국어 역사 알기
함께 하는 언어 생활	(1) 문법 규칙 이해하기 (2) 문법 규칙의 올바른 활용	(6) 문법에 맞는 국어 사용
전통과 창조	(1) 국어 발전 태도 기르기	(8) 국어 발전 태도 지니기

(20)에서 볼 수 있는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 목표는 크게 문법 분야와 국어사, 올바른 국어 생활 등의 세 부분으로 요약된다. 이는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 목표를 고려한다면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교육 과정의 내용 목표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은 국어 지식 영역이 요구하는 내용 목표이다.

(21)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목표

ㄱ.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1).

ㄴ.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2).

- ㄷ.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다(3).
- ㄹ.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4).
- ㅁ.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5).
- ㅂ.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6).
- ㅅ.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7).
- ㅇ.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8).

(21)의 내용 목표에서 교과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1), (3), (5), (7)이다. 즉, 언어의 본질이나 기능(1), 문법 요소들의 종류나 기능(3), 다양한 표현 방식(5), 올바른 국어 사용 태도(7) 등에 대한 내용 목표¹⁶⁾는 교과서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음을 (20)을 통해 알 수 있다. 더구나 국어 지식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에서 문법 이외의 언어학의 하위 분야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노출되어 있다. 다양한 문법적 요소와 그 개념, 그리고 언어 사용에서의 관련 요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교과서와 교육 과정의 상관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

16) 김현수(1993, 11)에서는 언어 지식 영역의 성격으로, 1) 언어학의 성과물이 언어 현상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2) 언어 지식 영역의 지식은 언어 활동과 통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7차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에서의 국어 지식 영역은 매우 소략한 것이다.

2. 단위 설정의 합리성

2.1 단위 구성 방식

교과서의 단위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이성영, 1992:83-85).

첫째는 주제별 구성 방식이다. 주제별 구성 방식은 교육 과정에 제시된 지도 사항에 따라서 제재별로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대단원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제재들로 소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문종별 구성 방식이다. 이는 교육 과정에 반영된 학년별 내용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의 유형별로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종별 구성 방식은 일반화할 수 없다. 화제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제적인 기능이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목표별, 또는 영역별 구성 방식이다. 목표별 구성 방식은 영역별로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다시 영역별로 소단원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제5차 교육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제6차 교육 과정에서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내용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의 성격을 공유하는 대단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단원의 분석을 일괄적이고 다양하고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 과정 또한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구성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6차 교육 과정과 제7차 교육 과정에 반영된 국어 지식 영역 부분의 구성 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국어 지식 영역의 단원 구성

구분	제7차 교과서		제6차 교과서	
	대단원	학습 목표	대단원	학습 목표
내용	짜임새 있는 말과 글	1. 문장의 짜임새 알기	국어의 구조	1. 음운 변화 2. 단어와 문장 구조 3. 문체와 사회의 구조 4. 어법에 맞는 문장 사용
	바른 말 좋은 글	1. 문법에 맞는 활동	언어와 국어	1. 언어의 특성 2. 언어의 체계와 구조, 기능 3. 국어의 음운, 어휘, 문장 4. 어법에 맞는 문장 사용
	국어가가 걸어온 길	1. 국어의 역사 알기 2. 음운, 문법, 의미, 표기법의 시대별 변화 3. 국어 변화 과정과 현대국어의 비교 4. 국어의 역사 정보 찾기, 알기	국어와 변화	1. 국어 역사 알기 2. 옛 글의 내용 이해 3. 한글의 창제와 우수성
	함께하는 언어 생활	1. 문법 규칙 이해와 활용하기	국어와 생활	1. 우리말 가꾸기 필요성, 실천 방법 2. 새말의 탄생 과정 3. 남북한 언어의 차이 4. 신뢰감, 공감의 언어 활동
	전통과 창조	1. 국어 발전 태도 기르기		

(22)에서 보듯이, 제7차 교과서에서는 제6차 교과서보다 대단원의 수가 하나 더 많이 배정되어 있다. 이는 문법적, 국어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과 같은 실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국어 지식 영역의 범위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22)를 고려할 경우 제6차 교과서보다는 제7차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고, 단일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목표별, 영역별 단원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바른 말 좋은 글>에서는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법에 맞는 국어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에 따라서 세 개의 소단원은 문법에 맞는 국어의 활용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학습 활동을 전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7차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은 제6차 교과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예컨대 <국어의 구조>라는 대단원은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소단원은 동일한 학습 목표를 위해 학습 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7차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법은 제6차 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2.2 단원의 상호 체계성

같은 영역에 있는 단원의 학습이 다른 성격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단원에 대한 학습보다 그 효과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각각의 단원은 동일한 학습 목표 밑에서 비슷한 성격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즉, 국어과의 하위 영역에 속한 대단원과 그 대단원에 속한 소단원들은 서로가 성격상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구성도 기본적으로는 영역별로 대단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단원에 속한 소단원들도 서로가 밀접한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에서 제7차 교과서의 국어 지식 영역에 속하는 대단원과 각 대단원에 속하는 소단원의 체계적 관련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국어 지식 영역의 단위 구성

제7차 교과서			
대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	학습활동
짜임새 있는 말과 글	1. 문장의 짜임새 알기	(2) 나의 소원	2-1. 문장의 짜임새 알기
바른 말 좋은 글	1. 문법에 맞는 활동	(1) 말 다듬기 (2) 문장 다듬기	3-1. 좋은 글 다듬기
함께하는 언어 생활	1. 문법 규칙 이해와 활용 하기	(1) 역사 앞에서 (2) 어느 날 삼 장이 말했다	1-1. 시제 표현 1-2. 높임 표현 1-3. 부정 표현 1-4. 피, 사동 표현 2-1. 언어 표현의 순화
전통과 창조	1. 국어 발전 태도 기르기	(1) 춘향전 (2) 건축과 동양 정신	1-1. 상황에 따른 표현 방법
국어 가 걸어온 길	1. 국어의 역사 알기 2. 음운, 문법, 의미, 표기법 의 시대별 변화 3. 국어 변화 과정과 현대 국어의 비교 4. 국어의 역사 정보 찾기, 알기	(1) 고대 국어 (2) 중세 국어 (3) 근대 국어	1-1. 고대 삼국 언어 특징 1-2. 한자 차용법 1-3. 고대 시기 표기법 2-1. 중세 국어의 특징 2-2. 중세와 현대 국어의 차이 3-1. 근대 국어의 특징 3-2. 개화기 시대의 국어 특징

(23)에서 보듯이, 제7차 교과서에 반영된 각각의 대단원 학습 목표는 1)

문장의 구조, 2) 문법적 정보, 3) 국어사, 4) 국어에 대한 인식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학습 목표 2)가 제시된 <바른 말 좋은 글> 단위에서는 학습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문법 내용을 통사론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단위 상호간의 체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 말 좋은 글>의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1) 서술어의 특징과 지릿수, 2) 의미적 중복성, 3) 서술어와 성분의 호응 관계, 4) 문장 구성, 5) 의미적 모호성, 6) 관형화, 명사화 등의 내용 구성을 취함으로서 실제로는 <함께하는 언어 생활> 대단원의 학습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대단원과 그것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내용을 모두 고려할 때 제7차 교과서의 단위 상호 체계성은 대단히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3. 단위 배열의 적절성

국어 지식 영역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교육부, 1997:29)하는 영역이다. 즉, 국어 지식 영역은 1) 언어 현상의 규칙성 발견, 2) 국어 지식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 지식 영역은 이론적 분야와 실제적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교육부(1997)에서도 이러한 국어 지식 영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24)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

- ㄱ. 국어의 본질 -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징, 국어의 변천
- ㄴ. 국어의 이해와 탐구 - 음운, 낱말, 어휘, 문장, 의미, 담화
- ㄷ. 국어에 대한 태도 - 동기, 흥미, 습관, 가치
- ㄹ. 국어의 규범과 적용 - 표준어와 표준 발음, 맞춤법, 문법

(24)에서 ㄱ과 ㄴ은 이론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ㄷ과 ㄹ은 실제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국어 지식 영역의 단원 체계는 이론적 성격과 실제적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 체계가 얼마나 적절하게 교과서에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5) 학년별 내용 목표(10학년)

- ㄱ.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 ㄴ.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 ㄷ.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다.
- ㄹ.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 ㄹ.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 ㅂ.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 ㅅ.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ㅇ.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25)의 체계는 다시 이론적 영역과 실제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이론적 영역은 ㄱ, ㄴ, ㄷ, ㄹ, ㄹ이며, 실제적 영역은 ㅂ, ㅅ, ㅇ이다. 결국 (25)의 학년별 내용은 (24)와 같은 국어 지식 영역의 상위 체계에 따라서 이루어진 체계이므로 (25)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 내용은 전적으로 (24) 내용

체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24)의 내용과 (25)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26)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 체계의 비교

	학년별 국어 지식 영역	국어 지식 내용
이론적 내용	ㄱ.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ㄱ. 국어의 본질
	ㄴ.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ㄱ. 국어의 본질
	ㄷ.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다.	ㄴ. 국어의 이해와 탐구
	ㄹ.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ㄴ. 국어의 이해와 탐구
	ㅁ.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ㄴ. 국어의 이해와 탐구
실제적 내용	ㄴ.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ㄹ. 국어의 규범과 적용
	ㄷ.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ㄷ. 국어에 대한 태도
	ㅁ.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ㄷ. 국어에 대한 태도

(26)에서 보듯이, 학년별 국어 지식 영역과 국어 지식 내용은 이론적 내용과 실제적 내용이 매우 정연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어 지식 영역의 각 하위 내용을 좀더 검토해 보면 이러한 대응 관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5ㄱ, ㄴ)은 (24)의 ‘국어의 본질’을 반영하는 내용 체계로 파악된다. 또한 (25ㄷ, ㄹ, ㅁ)의 ‘문법 요소의 기능’과 ‘문장의 짜임새’, 그리고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은 (24)의 ‘국어의 이해와 탐구’에 해당한다. 또 (25ㄷ, ㄹ)의 ‘문법 요소의 기능’과 ‘문장의 짜임새’, 그리고 (25ㅁ)의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은 각각 통사론과 텍스트론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는 (24ㄴ)의 국어 지식 영역의 하위 내용인 ‘음운, 낱말,

어휘, 문장, 의미, 담화’에서 ‘음운, 낱말, 어휘, 의미’를 다루는 음운론(음성학), 형태론, 어휘론, 의미론’은 학년별 내용 체계에서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4)의 국어 지식 영역 내용 체계와 (25)의 학년별(10학년) 내용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에는 ‘음운, 낱말, 어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어 지식 영역과 학년별 내용의 상관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불일치 현상은 결국 한정된 지문 속에서 다양한 국어 지식 영역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문법>이라는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여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 과정의 적절한 표현이나 교과서 반영 과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어 지식 영역과 이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학년별 내용 체계는 엄밀하게 대응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단원 구성의 적절성

단원 구성의 적절성이란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적합한가?’ 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어 지식 영역의 단원 구성은 앞서 살핀 다른 영역의 단원과 마찬가지로 ‘대단원-단원의 길잡이-준비 학습-소단원 학습-단원의 마무리-보충·심화 학습’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은 단원의 성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학습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단원의 길잡이’는 학습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단계로, 목표 해설,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과 기능의 수

행에 대한 안내 등을 예시, 설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단계를 말한다(한국 교육 개발원, 1995:19).

‘준비 학습’은 소단원의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단원의 학습 방향과 내용에 대한 단서를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나 생활 경험에서 학습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다. 특히, 다양한 매체 언어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습자의 생활 문화에서 탐구 활동의 동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다.

‘소단원 학습’은 구체적인 탐구의 과정을 말하는데, 활동 중심 원칙에 의거하여 학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재와 학습 활동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제7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는 ‘알아두기’ 항목을 제재 중간에 두어 학습 활동의 수행에 요구되는 개념적, 방법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으며, ‘학습 활동’ 역시 제재 중간에 배치하여 제재의 구체적인 국면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의 마무리’는 소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단원의 마무리 부분은 ‘정리하기’와 ‘점검하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충, 심화 학습’은 앞선 단계에서 ‘점검하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 수준이 낮다고 판단한 학습자들은 보충 학습을 선택하고, 성취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 학습자들은 ‘심화 학습’을 선택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학습자 위주의 활동에 맞도록 하였다.

단원 구성의 적절성 여부는 결국 ‘대단원-단원의 길잡이-준비 학습-소단원 학습-단원의 마무리-보충·심화 학습’이라는 단계에 맞도록 국어 지식 영역과 학년별 내용 체계가 상관 관계를 형성하면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국어 지식 영역과 관련된 대단원과 소단원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27) 국어 지식 영역의 대단원과 소단원

대단원	소단원	국어 지식 영역	학년별 내용	구체적 분야
짜임새 있는 말과 글	(2) 나의 소원	(24ㄴ)	(25ㄷ)	통사론
바른 말 좋은 글	(1) 말 다듬기 (2) 문장 다듬기	(24ㄴ)	(25ㄷ)	통사론
국어가 걸어온 길	(1) 고대 국어 (2) 중세 국어 (3) 근대 국어	(24ㄱ)	(25ㄴ)	국어사
함께하는 언어 생활	(1) 역사 앞에서 (2) 어느 날 심장이 말 했다	(24ㄴ)	(25ㄷ)	통사론
전통과 창조	(1) 춘향전	(24ㄴ)	(25ㄹ)	통사론(응용 국어학)

(27)에서 보듯이, 각각의 소단원을 통해서 학습할 내용은 통사론과 국어사 등으로 압축된다.

일반적으로 통사론의 논의 범위는 1) 문장의 짜임새, 2) 문장의 성분, 3) 문장의 확대 방법과 유형, 4) 문법 요소의 기능¹⁷⁾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국어사의 논의 범위는 1) 국어의 형성과 역사, 2) 음운의 변천, 3) 어휘의 변천, 4) 문법의 변천, 5) 의미의 변천¹⁸⁾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응용 국어학은 현재 그 연구 범위나 연구 방법, 연구 대상과 내용의 한계 등에

17) 허웅(1983) 참조

18) 이기문(1985) 참조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못하다. 또한 <전통과 창조> 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학습 목표는 ‘국어의 발전 태도를 기른다’고 하여 태도의 면과 관련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전통과 창조> 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응용국어학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이상은 통사론과 국어사의 논의 범위와 논의 대상을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대단원의 단원 구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대단원 가운데 비중이 높은 대단원을 선정하여 단원 구성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통사론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바른 말 좋은 글>을, 국어사와 관련해서는 <국어가가 걸어온 길>을 대상으로 한다.

4.1 <바른 말 좋은 글>의 적절성 분석

1) 대단원

통사론을 학습하려면 통사론을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 이해가 요구된다. 즉, 1) 문장의 짜임새, 2) 문장의 성분, 3) 문장의 확대 방법과 유형, 4) 문법 요소의 기능 등에 대한 사전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단원의 대단원에서는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을 알기(교육인적자원부, 2002:154)’를 요구함으로써 통사론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이해와 학습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은 실제로 많은 통사론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예컨대, 조사나 어미의 적절한 사용, 서술어와 명사향과의 호응 관계(agreement relation), 명사향의 자리(valance)에 대한 적절한 의미론적 해석, 명사향이나 수식어에 대한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바탕으로 한 문법적 요소의 적절한 사용 등에 대한 논의는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에 수반되는 수많은

조건의 일례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소단원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학습 활동을 어렵게 하고, 특히 이러한 조건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통사론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매우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에 대한 이와 같은 모호한 제시는 결국 통사론에서 목표로 하는 국어 지식의 한 영역을 단순화시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통사론을 통해서 국어 지식의 체계적 학습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왜곡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2) 단원의 길잡이

<바른 말 좋은 글>의 단원의 길잡이에는 ‘문법에 맞게 국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대단원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어 활동이란 말하기와 글쓰기가 해당되는데, 국어 지식 영역에서는 올바른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문법적인 지식을 뜻한다. 따라서 ‘문법에 맞는 국어 활동’이란 통사론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문법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이러한 통사론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정보,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통사론적 정보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원의 길잡이가 요구하는 학습 활동이나 범위가 어떠한 수준의 것이며, 소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학습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일 통사론에서 다루어야 할 기초적인 사항을 열거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다소간 해소할 수 있고, 소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준비 학습

같다.

(29) <물음>

안내문의 문장이 목적에 맞게 짜여져 있는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자.

- 버스 승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했는가?
- 문장의 길이가 읽기에 적절한가?
-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가?
-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했는가?

물음 (29)에서 첫 번째 물음과 네 번째 물음은 의미론의 문제이며, 두 번째 물음과 세 번째 물음은 통사론의 문제로 파악된다. (29)의 물음은 결국 <바른 말 좋은 글>에서 요구하는 국어 지식은 통사론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의미론 및 언어 표현과 기능까지 아우르는 통사, 기능 및 의미론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대단원과 단원의 길잡이에서 목표로 한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과 ‘문법에 맞는 국어 활동’이 얼마나 추상적인 기술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학습자에게 더욱 폭넓은 생각과 면밀한 조사,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만 학습 내용을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데에는 상대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다분하다.

(29)에서 요구하는 통사론의 지식은 쉽고 적절한 어휘의 사용, 적절한 문장의 길이와 연결, 올바른 문법적 요소의 사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준비 학습 부분에서보다는 대단원이나 단원의 길잡이 부분에서 먼저 제시함으로서 통사론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화했다면 오

히려 학습 접근도가 높아졌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4) 소단원 학습

<바른 말 좋은 글>에서는 (1) 말 다듬기, (2) 문장 다듬기, (3) 글 다듬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단원 (1)의 ‘말 다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통해서 문장 구성시 어떠한 통사적 정보를 요구하는지를 묻고 있다.

(30) 다음 말을 다듬어 고쳐 보자.

- ㄱ. 너, 선생님이 빨리 오래.

ㄴ. 리보숨과 리숨조는 서로 틀린 거야.

ㄷ.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ㄹ.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ㅁ.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세요.

ㅂ. 보세요, 잘 날라가지 않습니까?

ㅅ. 영화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30)의 예는 ① 문법 요소의 호응 관계(ㄱ, ㄹ), ② 정확한 단어 사용(ㄴ, ㄷ, ㅂ), ③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ㅁ, ㅅ) 등에서 문제가 있음을 묻고 있다. ①은 통사론의 범주에 속하며, ②, ③은 언어 사용과 표현상의 문제이다. 결국 (30)의 예에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은 통사론과 언어의 표현과 쓰임새에 대한 내용으로 압축된다.

(31), (31)'의 다음과 같은 예도 이러한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1) ① 문법적 직관 키우기

다음 자료에서 어색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모두 찾아보자.

인체, 입체, 공간, 움직임.....

여러 개의 선을 그어 몸을 나누어 보고 다시 잇대어 연장시키기도 하면서 적절한 인체의 향과 선을 찾으며 생각해 보는 단어들이다.

우리 자신인 인체는 오랜 습관으로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라기보다는 시각적 구조물로서 간주되어지고 있다.

큰 키, 작은 눈, 멋진 다리 등 어떤 무엇인가의 시대 정신에 따르는 미의 기준으로 인한 비교 평가는 자연의 창조물인 인체 위에 본능적으로 인고의 창조자인 사람은 때로는 지나친 과장으로, 때로는 가슴을 졸이게 하는 최소한의 덧붙임으로 아슬아슬한 멋을, 즐거움을 좇기도 한다.

나의 작업들은 이러한 의복을 통한 인간의 사고 속에 내재되어 있을 꿈, 희망, 즐거움, 이상 등을 나의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며 발빠른 현재의 패션 산업 속에서 때로는 멈춰서 과거의 복식을 통하여 발견, 표현해 보고 공유하려 하는 것이다.

(31)은 문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표현상 어색한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31)에서 요구하는 답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32) ㄱ. 우리 자신인 인체는 오랜 습관으로→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인체는

- ㄴ. 시각적 구조물로서 간주되어지고 있다→시각적 구조물로 간주되고 있다.
- ㄷ. 어떤 무엇인가의 시대 정신에 따르는→무언가의 시대 정신에 따른
- ㄹ. 기준으로 인한 비교 평가는→기준으로 인한 비교 평가에 따라
- ㄹ. 최소한의 덧붙임으로→최소한의 덧붙임으로써
- ㅂ. 이러한 의복을 통한 인간의 사고 속에 내재되어 있을 꿈, 희망, 즐거움, 이상 등을 나의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며→인간의 사고 속에 내재되어 있을 꿈, 희망, 즐거움, 이상 등을 이러한 의복을 통해 나의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며
- ㅅ. 과거의 복식을 통하여 발견, 표현해 보고→과거의 복식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발견, 표현해 보고

(32)를 통해서 부적절한 문장이 생겨난 이유를 정리하면 1) 수식 관계의 불분명함(ㄱ, ㄷ, ㅂ), 2) 부적절한 피동 표현의 사용(ㄴ), 3) 어휘의 적절한 사용(ㄹ), 4)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ㄹ, ㅅ) 등이다. 따라서 1)-4)는 모두 통사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만일, 1)-4)와 같은 통사적인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더욱 효율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음 예 (33)도 (30)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이다.

(33) ② 문장 성분 갖추기

다음 문장에서 성분을 보충해야 할 부분을 찾아 고쳐 보자.

·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 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문학

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
-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다음 문장에서 불필요한 성분을 찾아 고쳐 보자.

-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 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방학 기간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다음 문장을 성분이 자연스럽게 호응되도록 고쳐 보자.

-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 현재의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든다.
-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이 지역은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는 자연 공원법 제60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관형화·명사화 구성을 바르게

다음 문장을 다듬어 고쳐 보자.

- 유구한 빛나는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융통성 없는 문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 이 수술은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고도의 정밀한 수술로 비용도 저렴한 파격적인 저비용이다.

다음 문장을 다듬어 고쳐 보자.

-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 여름이 되면 수해 방지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은주는 권장 도서 목록 선정이 너무 주관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각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쓰고,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고쳐 써 보자.

-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두 개를 주셨다.
-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 시간이 이십 분뿐이 안 남았다.
- 우연치 않게 준성이를 만났다.
-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을 찾아 우리말답게 바꾸어 보자.

- 그 사람은 선각자에 다름 아니다.
-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자.
-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학생 회의에 있어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 침몰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33)은 크게 1) 서술어의 특징과 자릿수, 2) 의미적 중복성, 3) 서술어와 성분의 호응 관계, 4) 문장 구성, 5) 의미적 모호성 등의 문제를 가지는 예들이다. (33)의 각각의 예들은 1) - 5)의 통사 의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30)의 예문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도 각각의 문장들이 어떠한 통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좀더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바른 말 좋은 글>에서는 통사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사론뿐만 아니라 형태론, 의미론, 음운론, 국어사와 같은 다양한 하위 범주에 대한 체계적 관련성과 특징 등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살펴본 문장들의 문법적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문법성에 대한 문법적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개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본 단원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사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바탕을 둔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 효과를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 제시된 예시 문장을 바탕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통사론의 전체적인 개념을 사전 인식시킨 뒤 관련된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34) <바른 말 좋은 글>의 개정 서술 순서(안)

1. 어휘의 문맥적 사용
2. 서술어의 기능과 자릿수
3. 서술어와 성분의 문법적 호응 관계(agreement relation)
4. 문장 성분의 종류
5. 기본 문장
6. 문장의 확대(수식 관계)
7. 문장의 확대(접속문과 내포문)
8. 피, 사동 현상
9. 부정 현상
10. 의미적 모호성
11. 조심해야 할 표현-외국어 번역투, 일본어투 등

5) 단원의 마무리

본 단원의 ‘단원의 마무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정리하기 부분이고, 둘째는 점검하기 부분이다. 정리하기 부분은 다시 1) 말 다듬기, 2) 문장 다듬기, 3) 글 다듬기로 나누어져 있다. 통사론과 관련하여 앞서 우리가 살핀 부분은 ‘문장 다듬기’ 부분이다.

‘문장 다듬기’ 부분에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

ㄱ. 성분 호응시켜 쓰기
ㄴ. 관형화 구성을 바르게 하고, 명사화 구성을 남용하지 않기
ㄷ. 의미가 모호하지 않게 쓰기
ㄹ.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을 하지 않기

(35)는 ‘문장 다듬기’라는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1)과 (33)에 제시된 문장의 다양성에 비해서 정리된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문제는 ‘문장 다듬기’ 단원에서 제시된 통사론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에서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33)의 문장을 통해서 본 단원에서는 서술어의 기능과 특징, 서술어의 자릿수, 문장의 길이(접속문, 내포문 구성) 등에 대한 적절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기’ 부분은 본 단원의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점검하기’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다.

(36) 점검하기

내 용	상	중	하
· 말 다듬기의 중요성을 안다①.			
· 평소에 말할 때 다듬어 표현하는 자세를 지닌다②.			
· 문법적 직관을 바탕으로 바른 문장을 쓸 수 있다③. -문장 성분을 잘 조절하여 문장을 쓸 수 있다. -관형화 구성을 바르게 하고, 명사화 구성을 남용하지 않는다.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쓸 수 있다.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을 남용하지 않는다.			
· 짜임새 있는 글의 요건을 안다④.			
· 실제로 글을 짜임새 있게 쓰고, 쓴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다⑤.			

(36)은 본 단원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표이다. 평가는 상, 중, 하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으로 들어갈도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36)에서 본 단원과 관련된 부분은 ③이다. ③에서의 평가 내용은 ‘정리하기’ 부분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리하기’ 부분에서 지적되었던 본 단원의 통사론과 관련된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점에서 본 단원의 전반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6) ‘보충·심화 학습’의 과정

‘보충·심화 학습’ 부분은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루어진 점검표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충·심화 학습’ 부분의 ‘보충 학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평가함으로써 통사론과 관련된 내용을 보충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37)

혼자있고 싶어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관심어린 어머니의
대답을 뒤로 방의 문을 잠그고 무얼하는 건지
사춘기의 시작은 이렇게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고민과 고독으로 시작됩니다.
어느날 달라진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만 하시는 부모님
그러나 이젠 다시 태어나는 자녀의 모습을
호뭇한 마음으로 지켜볼 때입니다.
“그래, 지금은 괴롭고 고민스러워도 잘 이겨내 보렴!”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란다!”

하고 자녀를 격려해 줘야 할 때입니다.

지나친 관심, 또 지나친 무관심이 어른으로

성장하려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애정어린 대화로 자녀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청소년에게겐 올바른 관심이 필요합니다.

(37)의 광고문은 띄어쓰기나 문법 등의 측면에서 몇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을 지문으로 하여 보충 학습란에서 제시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 광고문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자.¹⁹⁾

ㄱ. 글을 쓴 의도가 잘 표현되었는가?

ㄴ.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게 글을 썼는가?

ㄷ. 문법에 맞게 글을 썼는가?

ㄹ. 맞춤법과 띄어쓰기 규범에 맞게 글을 썼는가?

(38)에서 통사론과 관련된 평가 항목은 ㄷ이다. 그런데 ㄷ은 통사론의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본 단원에서 의미하는 문법이란 결국 통사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통사론과 관련된 평가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되는 것이 평가자의 입장에서 더욱 더 편리할 것이다. 특히, 보충 학습을 시도하는 학생들에게는

19) 각 항목의 앞에 붙은 ㄱ, ㄴ, ㄷ, ㄹ은 편의상 붙임

더욱 명시적인 문법적 내용을 제시한 뒤 평가를 한다면 평가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용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37)에서 (38)의 ㄷ을 기준으로 하여 고친 부분들이다.

(39)ㄱ. 걱정하는 마음으로 관심어린

→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ㄴ. 사춘기의 시작은고독으로 시작됩니다

→ 사춘기는 이렇게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고민과 고독으로 시작됩니다.

ㄷ. 지나친 관심, 또 지나친 무관심이

→ 지나친 관심, 혹은 지나친 무관심이

→ 지나친 관심 또는 지나친 무관심 모두

→ 지나친 관심이나 지나친 무관심은 모두

(39)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친 것이다. ㄱ은 관형화 구성에서 오류를 범했으며, ㄴ은 어휘의 반복적 사용에 의해서, ㄷ은 접속어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37)의 광고문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한 보충 학습 내용은 올바른 관형화 구성 방법과 어휘의 적절한 사용, 접속어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사론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본 대단원에서의 학습 목표가 보충 학습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못하다. 관형화 구성을 제외한 어떠한 통사적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화 학습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난다. 심화 학습을 위해서 제시한 ‘문장이 문법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써 문법이 어떤 통사론적 정보와 직결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보충·심화 학습’에서의 학습 내용은 통사론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법 구사 능력을 키우는 데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 <국어가 걸어온 길>의 적절성 분석

1) 대단원

<국어가 걸어온 길>의 대단원 학습 목표는 국어의 변화 과정과 우리 겨레의 삶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1) 국어의 역사 알기, (2) 국어의 시대별 변화 알기, (3) 국어 변화 과정과 현대 국어의 비교, (4) 국어의 역사 정보 찾기, 알기와 같은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 목표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대단원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 설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단원의 길잡이

단원의 길잡이에 제시된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40) ㄱ. 국어의 역사를 안다.

ㄴ. 국어의 음운, 문법, 의미, 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안다.

ㄷ.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ㄹ.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40)에서 볼 수 있는 길잡이 내용은 대단원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구체

화시킨 것이다. 즉, (40)은 국어 지식 영역에 설정된 학습 목표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습 목표의 설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준비 학습

준비 학습란에서는 1930년대의 책 광고문과 1990년대의 책 광고문을 제시한 뒤 표기법에 반영된 국어의 변화 현상을 지적하게 하였다.

1930년대의 책은 국한혼용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체언이나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용언은 한자로 적혀 있다.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긴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띄어쓰기나 맞춤법에서도 일정한 규칙이 없이 기술되어 있다.

반면 1990년대의 광고문에서는 모두 한글 전용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부분적인 영어의 사용이라든지, 영어 발음의 한글 표기 등으로 인하여 1930년대의 광고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0년대 광고문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일정한 규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문장은 매우 짧고 이러한 문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개화기 시대와 현대 시대의 언어적 모습을 상호 비교하도록 하여 언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광고문이라는 실용문에서 어떠한 기능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언어가 변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학습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소단원 학습

본 단원의 소단원은 크게 1) 고대 국어와 2) 중세 국어, 3) 근대 국어로

이루어져 있다. 각 소단원은 다시 몇 개의 하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고대 국어

ㄱ. 국어의 뿌리와 줄기

ㄴ. 고대의 국어 생활 : 고유 명사의 표기 -한자 차용

고유 명사의 표기 -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

종합적인 표기 체제 - 향찰

(42) 중세 국어

ㄱ. 세종 어제 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

ㄴ. 소학언해(小學諺解)

(43) 근대 국어

ㄱ. 동명일과

ㄴ. 독립 신문 창간사

(41)-(43)는 각각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하위 단원을 보여주고 있다. 소단원의 이와 같은 구성은 앞서 (40)에 제시된 바와 같은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실제 학습 시간에 (40)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1)-(43)에 제시된 소단원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각 소단원에 배치된 ‘알아두기’와 ‘학습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설명을 더하거나 과제로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도한 학습량을 절제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고심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기문(1985)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어사에서의 논의 범위를 고려할 때 (41)-(43)과 같은 구성과 내용은 매우 소략하기 그지없다. (41)의 고

대 국어에 대한 논의도 고대 국어의 범위 문제, 고대의 국어 생활 등에서 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기문(1985)에서 제시된 고대 국어 당시의 표기법인 임신서기체(壬申誓記體)와 이두(吏讀), 구결(口訣)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러한 점은 향찰이 고대 국어 시기에 사용되었던 표기법의 전체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41)-(43)에 제시된 각 시기의 국어의 특징을 학습하기에는 그 학습활동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점이다. 고대 국어 시기와 중세 국어 시기, 그리고 근대 국어 시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음운, 형태, 어휘, 문법, 의미, 표기법, 그리고 이들의 시기적 변화 과정 등을 정해진 차시 내에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실제 학습 활동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병채(1989)에서 제시된 근대 국어 시기의 특징을 논의의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4) 근대 국어의 특징

1. 자료
2. 음운론적 특징
 - 1) 모음 체계
 - (1) ‘으’의 소실
 - (2) ‘익, 애, 에’의 단모음화
 - (3) 움라우트 현상
 - 2) 자음 체계
 - (1) ㅇ의 소실
 - (2) △의 소실
 - (3) ㅃ의 소실
 - 3) 음운 현상

- (1) 구개음화(17세기-18세기 교체기)
- (2) ‘의’의 이 단모음화
- (3) ㄴ 탈락(18세기 후)
- (4) 된소리, 거센소리의 강화
- (5) ㄹ 탈락
- 3. 형태론적 특징
 - 1) 어간의 독립적 사용법 소실
 - 2) 파생법
 - 3) 그 외 품사
 - 4) 곡용의 특징
 - 6) 활용
 - (1) 어간
 - (2) 어미 :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 4. 통사론적 특징
- 5. 어휘 : 순수어휘와 차용어, 한자어

(44)는 박병채(1989)에서 기술된 근대 국어의 특징이다. 매우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시한 것이지만, 실제로 근대 국어의 국어적 특징은 세부적으로 매우 방대하다. 이러한 특징은 고대 국어나 중세 국어 시기의 특징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단원의 학습 목표가 요구하는 문법, 형태, 음운, 어휘, 의미, 표기법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피상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과서 내에서는 각 시기별 국어의 특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시기별 자료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본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교사로서는 국어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학습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본 단원의 학습 목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 (41)-(43)은 같은 단원 구성을 학습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맞추어서

어느 한 시기의 국어사적 특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해 보는 것이 오히려 국어의 변화 과정을 여러 언어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적절하다. 예컨대,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특징은 지문을 제외한 정보 나열식으로 제시한 뒤 근대 국어의 특징을 (44)와 같이 제시하고, 현대 국어와 비교하는 방식의 학습 활동이 오히려 음운, 형태, 문법, 어휘 등의 측면에서 국어의 변화 과정을 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5) 단원의 마무리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정리하기’와 ‘점검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하기’에서는 소단원에서 논의한 각 시기별 언어 변천 내용을 정리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돕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법, 음운, 어휘, 의미, 표기법’ 등에서 본문에서 어떠한 학습 활동을 했는지가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전혀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실제 학습 활동 시 교사들에 의해서 소단원의 정리가 한 번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교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점검하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5) 점검하기

내 용	상	중	하
• 국어의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 고대 국어의 특징에 대해 안다. -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해 안다. - 근대 국어의 특징에 대해 안다.			
• 국어의 음운, 문법, 의미, 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안다.			
•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을 수 있다.			

(45)의 평가 내용에서는 각 시기별 국어의 특징과 시대별 변화 모습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리하기’에서는 이와 같은 평가 내용과는 거의 무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소단원과의 관련성과, ‘점검하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정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사용 지도서(2003:90)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친절하게 평가 과정을 안내하는 평가 도구를 교사가 제공하는 편이 좋다’고 하여 평가 내용을 교사가 직접 고안하여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 단원은 중학교 국어과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다, 기초적인 언어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하여 본 단원의 학습 목표가 학생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을 교사들이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지도서의 지도 내용은 학생들에게 본 단원의 학습이 사전에 언어와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단위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단원의 학습 활동은 앞서 분석해 보았던 <바른 말 좋은 글> 단위이나 또는 다른 단위, 또는 적어도 본 단원의 선수 학습으로 국어나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숙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2003)에 제시된 점검하기 평가 항목의 예는 학습 목표의 근접성과 관련시킬 경우 매우 포괄적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2003)에 제시된 평가 항목의 구체적인 예이다.

(46) 평가 항목의 예시

내 용	세 부 내 용(예시)
·국어의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고대 국어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근대 국어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국어의 계통과 형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표기법을 중심으로 고대의 국어 생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국어의 음운, 문법, 의미, 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안다.	-주어진 자료에서 시대에 따른 음운상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주어진 자료에서 시대에 따른 문법상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주어진 자료에서 시대에 따른 의미상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주어진 자료에서 시대에 따른 표기법상의 변화를 찾아 낼 수 있다.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현대 국어와 그 이전 시기 국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 그 이전 시기 국어의 자취를 찾아낼 수 있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을 수 있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듣기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이용할 수 있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읽기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이용할 수 있다.

표 (46)에서 보듯이, 평가 내용은 학습 목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각 평가 내용의 세부 항목에서는 평가 항목의 성격이 학생들에게 매우 피상적이고 난해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의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는 내용을 평가하는 세부 내용으로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평가 항목은 ‘흐름’이 어떠한 국어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이 제시될 수 있다. ‘흐름’이 우리 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국어사적 흐름인지, 아니면 순수한 언어학적 변화상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국어의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나 ‘자음(또는 모음)의 변화 과정을 시대별로 약술하시오’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올바른 평가 항목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단원에서의 점검하기는 평가 항목을 교사가 스스로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파악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점검하기’의 목표는 ‘정리하기’와는 달리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되지만, 평가 항목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좀더 세부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6) 보충·심화 학습 과정

‘보충·심화 학습’ 부분은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루어진 점검표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본 단원에서의 ‘보충 학습’에서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서문 뒷부분을 제시하여 학습 목표의 구체적인 습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서문부에서 1) 자모를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하기, 2) 자모 중 현대 국어에서 없어진 글자를 찾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 학습’에서 요구하는 학습 목표는 결국 국어의 음운의 변화 과정에 대한 사적인 정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심화 학습’에서는 ‘노걸대 언해’를 제시하고 1) 이 글에 사용된 종결 어

미를 찾아서 현대 국어의 종결 어미와 비교하고, 2) 현대 국어의 ‘에게(서)’에 해당하는 어미를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심화 학습’에서는 국어의 변화를 통사의 변화 과정에 국한시킴으로써 학습 목표의 항목 대부분을 논의에서 놓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충·심화 학습’에서는 국어의 변화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구성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IV. 교과서 ‘국어 지식’ 영역의 분석 결과 및 평가

지금까지 제7차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의 체제상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국어 지식 영역에 국한시켜 1)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 2) 단원 설정의 합리성, 3) 단원 배열의 적절성, 4) 단원 구성의 적절성 네 측면에서 살폈다. 특히 단원 구성의 적절성은 통사론과 국어사의 영역에 걸쳐서 각각 <바른 말 좋은 글>, <국어가 걸어온 길>을 대상으로 하여 살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

1) 형식적 상관성에서는 국어과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의 소단원 가운데 국어 지식 영역이 차지한 비율은 제6차와 제7차에서 각각 6%와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6차에 비해 7차에서는 그 비율이 다소 늘어났으며, 다른 하위 영역과 대비해 볼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전 영역을 교과서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가르치려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적이 형식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내용적 상관성의 측면에서는 교육 과정의 목표를 제7차 교과서의 학습 목표가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했음을 밝혔다. 즉,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 목표의 성격이 통사론과 국어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제반 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곧 국어 지식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음운론, 형태론, 음성학, 어휘론, 의미론, 응용국어학 등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

을 의미한다. 특히,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등은 국어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내용들로 구성된 분야라는 점에서 <바른 말 좋은 글>, <국어가 걸어온 길> 등과 같은 단원의 학습에서 학생들과 교사가 적절한 연계 학습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내용적 상관성에서는 국어 지식에서 가르쳐야 할 다양한 문법적 요소와 개념, 그리고 언어 사용에서의 관련 요소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져 있어 문법 이외의 언어학적 하위 분야가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여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교과서와 교육 과정의 상관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단원 설정의 합리성

1) 단원 설정의 합리성을 단원 구성 비율의 합리성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5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진 6차 교과서보다 7차 교과서에 대단원의 수가 하나 더 배정되어 있고, 문법적, 국어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와 같은 국어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단원의 상호 체계성에서는 국어과의 하위 영역에 속한 대단원과 그 대단원에 속한 소단원들이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단원과 그것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서로 중복됨 없이 구성되어 있어 제7차 교과서 국어 지식 영역 단원의 상호 체계성은 대단히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3. 단원 배열의 적절성

단원 배열의 적절성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와 학년별(10학년) 내용을 대비시킨 결과 교과서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여 상호간 엄밀하게 대응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지식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크게 공시적인 면과 통시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공시적인 측면에서 지식 영역은 음성-음운-낱말-어휘-문장-의미-담화(텍스트)로 단계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제7차 교과서의 단원 배열에서는 음운-낱말-어휘-의미를 고려한 배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원 배열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적절성의 결여는 한정된 지문 속에서 다양한 국어 지식 영역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학습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생이나 교사들이 학습 활동에서 겪어야 할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적인 면에서의 단원 배열은 앞으로의 교과서 구성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통시적인 측면에서는 국어의 시대별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이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 <국어의 길>이라는 단원이 배당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국어의 발달사를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국어의 계통과 고대 국어의 특징, 중세 국어의 특징, 근대 국어의 특징 등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4. 단원 구성의 적절성

단원 구성의 적절성에서는 각각의 소단원을 통해서 학습할 내용이 통사론과 국어사로 대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7차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바른 말 좋은 글>과 <국어

가 걸어온 길> 두 단원을 살폈다. 두 단원은 각각 통사론과 국어사를 대표하는 단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단원 구성의 적절성은 각 단원의 배열 순서, 즉 ‘대단원-단원의 길잡이-준비 학습-소단원 학습-단원의 마무리-보충·심화 학습’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4-1) <바른 말 좋은 글>의 적절성 분석에서,

‘대단원’에서는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을 알기’를 제시함으로써 통사론에 대한 다양한 사전 이해를 요구해 학습 활동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단원의 길잡이’에서도 ‘문법에 맞게 국어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역시 세부적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준비 학습’에서는 ‘쉽고 적절한 어휘 사용, 적절한 문장의 길이와 연결, 올바른 문법 요소의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소단원 학습’에서는 ‘통사론, 언어의 표현 및 쓰임새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에 속하는 형태론, 의미론, 음운론, 국어사와 같은 하위 범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다. ‘단원의 마무리’는 ‘정리하기’와 ‘점검하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먼저 제시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적절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보충·심화 학습’의 ‘보충 학습’ 과정에서는 ‘올바른 관형화 구성 방법과 어휘와 접속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관형화 구성을 제외한 어떠한 통사적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심화 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문법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어떤 통사론적 정보와 직결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단원에 제시된 학습 내용은 통사론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과 이에 바탕을 둔 문법 구사 능력 신장에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4)에 제안한 바와 같이 통사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바탕을 둔 문장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2) <국어가 걸어온 길>의 적절성 분석에서, '대단원'에서는 '국어의 역사, 시대별 변화, 국어 변화 과정과 현대 국어의 비교, 국어의 역사 정보 찾기' 등 국어 지식 영역의 포괄적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원의 길잡이'에서도 (4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어 지식 영역에 설정된 학습 목표와 일치한다. '준비 학습'에서도 '개화기 시대와 현대 시대의 언어적 모습을 상호 비교하도록 하여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학습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소단원 학습'에서는 구성과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각 시기 국어의 특징을 학습하기에 매우 부족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특징을 정보 나열식으로 제시한 뒤 근대 국어의 특징을 제시하고, 현대 국어와 비교하는 방식의 학습 활동이 음운, 형태, 문법, 어휘 등의 국어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원의 마무리'의 '정리하기'에서는 본문에서 어떠한 학습 활동을 했는지가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전혀 제시되지 않아 학습 활동 시 교사들이 소단원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점검하기'에서는 '정리하기'에서 소단원의 평가 내용과 거의 무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소단원과의 관련성을 점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점검하기'의 목표는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되지만, 평가 항목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좀더 세부적인 평가 항목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보충·심화 학습'의 '보충 학습' 과정에서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서문부에 사용된 자·모음 가운데 현대 국어에서 없어진 글자를 찾는 활동을 요구함으

로써 학습 목표가 국어의 음운 변화 과정에 대한 사적인 정보에 국한되어 있다. ‘심화 학습’에서는 ‘노걸대 언해’에 나타난 종결어미를 현대 국어의 종결 어미와 비교하고, 현대 국어의 ‘에게(서)’에 해당하는 어미를 찾도록 요구하여 국어의 변화를 통사 변화 과정에 국한시킴으로써 학습 목표의 항목 대부분을 논의에서 놓치고 있다. 따라서 국어의 전반적 변화 과정을 다루지 못한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제7차 교육 과정은 자기 주도적 수업과 수준별 학습을 기본적인 활동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 개편된 국어 교과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전과는 다른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학습 목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기술 태도나 평가에서의 단계적 활동 유도 등의 태도는 제7차 교육 과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새로 개정된 교육 과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 학습 목표와의 상관성, 특히 국어 지식 영역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의 합목적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는 국어 교과서의 하위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으로 나누어 교육 과정에 반영된 각 영역들의 내용 목표가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하위 영역의 내용 목표와 교과서의 학습 목표간 상관성이 대체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국어 지식 영역의 일부분에서는 교육 과정의 내용 목표와 학습 목표가 적절하게 대응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일선 교사들이 느껴야 할 학습 활동시의 부담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명료한 학습 목표의 설정과 이를 위한 대단원과 소단원의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제7차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의 체제상의 타당성과 적절성

을 국어 지식 영역에 국한시켜 1)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 2) 단원 설정의 합리성, 3) 단원 배열의 적절성, 4) 단원 구성의 적절성 네 측면에서 살폈다. 특히 단원 구성의 적절성은 통사론과 국어사의 영역에 걸쳐서 각각 <바른 말 좋은 글>, <국어가 걸어온 길>을 대상으로 하여 살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어 지식 영역과 교육 과정과의 상관성은 형식적 상관성과 내용적 상관성의 측면에서 살폈다. 형식적 상관성에서는 제6차 교과서와 제7차 교과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대단원 수에서는 각각 5개와 6개였으며, 소단원 수에서는 각각 11개로서 차이가 없었다. 양적인 차이가 교육 과정과 국어 지식 영역간의 상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7차 교과서에서도 국어 지식 영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충되지 못했다는 점은 국어 지식의 이해와 활용이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비판적 이해 및 창의적 능력 향상,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이라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적 상관성의 측면에서는 교육 과정의 목표를 제7차 교과서의 학습목표가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했음을 밝혔다. 즉,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목표의 성격이 통사론과 국어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제반 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곧 국어 지식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음운론, 형태론, 음성학, 어휘론, 의미론, 응용국어학 등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등은 국어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내용들로 구성된 분야라는 점에서 <바른 말 좋은 글>, <국어가 걸어온 길> 등과 같은 단원의 학습에서 학생들과 교사가 적절한 연계 학습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고되어야 할 점으로 평가된다.

2) 국어 지식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크게 공시적인 면과 통시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공시적인 측면에서 지식 영역은 음성-음운-낱말-어휘-문장-의미-담화(텍스트)로 단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제7차 교과서의 단원 배열에서는 음운-낱말-어휘-의미를 고려한 배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단원 배열에서 볼 수 있는 적절성의 결여는 한정된 지문 속에서 다양한 국어 지식 영역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학습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생이나 교사들이 학습 활동에서 겪어야 할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원 배열의 적절성 문제도 앞으로의 교과서 구성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통시적인 측면에서는 국어의 시대별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이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 <국어의 길>이라는 단원이 배당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국어의 발달사를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국어의 계통과 고대 국어의 특징, 중세 국어의 특징, 근대 국어의 특징 등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제7차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목표별, 영역별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제5, 6차 교과서의 구성과 일치한다. 제7차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각 단원에서의 학습 내용이 같은 목표를 가지는 단원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원 설정의 합리성이 적절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단원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제7차 교과서에서의 단원 상호간 체계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제7차 교과서의 단원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바른 말 좋은 글>과 <국어의 길> 두 단원을 살폈다. 두 단원은 각각 통사론과 국어사를 대표하는 단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단원 구성의 적절성은 각 단원의 배열 순서, 즉 '대단원-단원의 길잡이-준비 학습-소단원 학습-단원의 마무리-보충·심화 학습'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바른 말 좋은 글>에서의 대단원은 포괄적인 학습 목표를 요구함으로써 교사나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원의 길잡이'에서도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준비 학습’에서는 통사론의 학습에서 부분적인 학습 내용만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접근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단원 학습’에서도 ‘문법에 맞는 문장의 요건’을 몇 가지 통사론적 지식에만 한정시켜 논의했다는 점에서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나, 아니면 적어도 선수 학습으로서 통사론적 사전 정보가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본 단원의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밝혔다. ‘보충·심화 학습’에서는 통사론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묻는 평가 항목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국어가 걸어온 길>에서는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대단원’에 제시된 학습 목표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단원의 길잡이’에 제시된 학습 목표 또한 이러한 점에서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파악하였다. ‘준비 학습’에서는 예시문을 비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어가 변화하는 대상이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들의 삶의 성격 변화가 접맥되어 있어 ‘준비 학습’ 또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소단원 학습’에서는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 근대 국어로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에 따른 국어의 특징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대별 국어의 특징이 지문을 통하여 완벽하게 학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방대한 국어의 특징을 각각 두 개의 지문을 통하여 학습하기에는 학생이나 교사들 모두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전에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단원의 마무리’에서도 기초적인 언어학 또는 국어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의 학습 내용에 맞는 새로운 평가 항목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어사 단원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보충·심화 학습’에서는 국어의 변화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제7차 교육 과정에 입각한 국어 교과서의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결과는 학생들을 학습 활동의 주체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각 단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교과서 구성에서는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 학습 부분을 강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교육 과정의 개편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등장한 제7차 교육 과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학생 위주의 교육’이라는 정신은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서의 세부 영역에 맞는 교육 과정상 내용 목표와 이것의 투영으로 볼 수 있는 교과서 학습 목표의 상관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 국어 지식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세부 영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올바른 교과서 편성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저서, 보고서 】

- 교육인적자원부(1997), 『고등학교 교육 과정(Ⅰ)』.
-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국어-.
- 교육인적자원부(1998), 『고등학교 국어』 (상), (하).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국어』 (상), (하).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육부 홈페이지 '제7차 교육 과정' 사이트.
- 교육인적자원부(2003),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하).
- 김광해(1997), 『국어 지식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 외(1993), 『국어 교육론』, 일조각.
- 박도순, 홍후조(2002), 『교육 과정과 교육 평가』, 문음사.
- 박병채(1989), 『국어 발달사』, 세명사.
- 신헌재 외(2001),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 방안』, 박이정.
- 이기문(1985), 『국어사 개설』, 탑 출판사.
- 이삼형 외(2000), 『국어 교육학』, 소명 출판사.
- 정동화 외(1984), 『국어과 교육론』, 선일 문화사.
- 허 웅(1983), 『국어학』, 샘 문화사.

【 논문 】

- 김영대(1999),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안 연구』,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 김지연(1996), 『제6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언어 영역>

- 단원 분석』, 상명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현수(1993), '중등학교 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지식 영역 교재 개발 시론,
『국어 교육 연구 50집』, 서울 대학교 대학원 국어 교육 연구회.
- 서금옥(1992),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
화 여자 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안수경(1997),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여승현(2002), 『중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 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관규(1998),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 -새로운 국어
교육을 위하여-', 고려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 교육과.
- (1997),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1)-고등학교를 중심으
로-', 『한국어학 6권』, 한국어학회.
- 이상률(1987), 『국어 교과서의 분석적 연구 : 고등 국어 1을 대상으로』, 영
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조현수(1985), 『<중학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영남 대학교 교육 대학
원 석사 학위 논문.
- 최현숙(1986),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 짜임 연구 : 제4, 5, 6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경북 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